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9.07 [42~45]

(가)

어제 밤 부든 바람 금성(金聲)이 완연(宛然)하다
 고침단금(孤枕單衾) 깊이 든 밤 상사몽(相思夢) 훌쩍 깨여
 ㉠ 죽창(竹窓)을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보니
 창창한 만리장공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천연한 이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A]
 심사도 창연(惘然)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원에 부는 바람 이한(離恨)을 알리는 듯 [B]
 추국(秋菊)에 맺힌 이슬 별루(別淚)를 머금은 듯
 실 같은 버들 남쪽 봄 피꼬리 이미 돌아가고 [C]
 소월비파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 슬피운다
 임 여회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 [D]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런가

(중략)

지척 동방 천 리되어 바라보기 묘연(杳然)하고
 은하작교(銀河鵲橋) 끈겼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 인정이 끈겼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耳目)에 매여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천수만한(千愁萬恨) 가득한데 끝끝치 느끼워라
 하물며 이는 ㉢ 추풍(秋風) 별회(別懷)를 부쳐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시름이라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마는
 유유별한(悠悠別恨)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愁聲)이라 [E]
 아해야 슬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

(나)

넷 사람 이셋 사람 이목구비(耳目口鼻) ㄹ것마는
 나 혼자 었디 호야 넷 사람을 그리노고
 이제도 넷 사람 겨지니 귀 내 벗인가 호노라
 <제1수>

청송(靑松)으로 울흠 삼고 ㉣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르고
 초옥삼간(草屋三間)의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흉중(胸中)에 사념(邪念)이 업스니 그를 사랑호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싱각고 바라보니
 용추동(龍湫洞) 맞꼬오 구름드리 우회로다
 밤마다 외로운 뉘만 호자 든너 오노라
 <제5수>

미는 첩첩(疊疊)호고 구름은 자자시니
 고인(故人)의 집 땅이 바라도 불성업다
 막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 호노라
 <제7수>

㉤ 상산(商山)의 영지(靈芝) 캐러 구태여 냇이 가리런가
 좃츠 리 업스되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世上)의 어저러운 일들 듯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 정훈, 「월곡답가(月谷答歌)」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게 혐오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부채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가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화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 ② ㉡ :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다.
- ③ ㉢ :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이다.
- ④ ㉣ :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 ⑤ ㉤ : 화자가 연모하는 임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B] :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C] :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E] :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도(友道)’란 벗을 사귀는 데 중요한 덕목으로, 사대부 시가에서 ‘우도’는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이나 풍류와 은거 등의 친자연적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곡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왜적에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고, 전란 후에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초야에 은둔했던 삶을 살았다. 작가는 ‘우도’를 통해 월곡을 추모하며 충의를 중시했던 월곡의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제4수>에서 작가는 ‘초옥삼간’에서 ‘사념’이 없이 살고 있는 벗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벗이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제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름드리’ 위를 ‘뭍’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벗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제7수>에서 작가는 벗의 ‘집’을 ‘뼉’과 ‘구름’에 묻혀 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뼉’과 ‘구름’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제9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벗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어스러운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가)

어제 밤 부든 바람 금성(金聲)이 완연(宛然)하다
 고침단금(孤枕單衾) 깊이 든 밤 상사몽(相思夢) 홀쩍 깨어
 죽창(竹窓)을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보니
 창창한 만리장공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천연한 이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어제 밤에 불던 바람, 금성이 보이는 새벽의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홀로 쓸쓸히 잠들어 상사몽을 꾸고 홀쩍 깨어 밤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이후 잠에서 깬 화자는 대나무 창을 열고 바깥의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밖에선 여름 구름이 하늘에서 흩어지고 이 강산에는 찬 기운이 새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고침단금’과 같은 사자성어가 등장했을 때,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종종 뜻풀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자성어를 굳이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주변 어휘에서 최대한 정보를 파악해 시의 해석을 이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추풍감별곡의 경우, ‘상사몽’에서 홀쩍 깨었다는 점을 통해 잠을 자던 중 상사몽에서 깨어난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로움, 쓸쓸함과 같은 감정과 연계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고침단금’의 뜻 또한 ‘여자 혼자 쓸쓸히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도 창연(愴然)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원에 부는 바람 이한(離恨)을 알리는 듯
 추국(秋菊)에 맺힌 이슬 별루(別淚)를 머금은 듯
 실 같은 버들 남쪽 봄 피꼬리 이미 돌아가고
 소월비파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 슬피운다
 임 여회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예런가 꿈이런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마음도 쓸쓸한(앞의 고침단금과 마찬가지로 시의 분위기를 통해 뜻을 유추하여 파악하면 됩니다.)데 풍경 또한 서글프니 화자의 쓸쓸함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화자의 쓸쓸한 감정에 정원에 부는 바람은 이별의 한을 알리는 듯, 가을 국화에 맺힌 이슬은 이별의 눈물을 머금은 듯합니다. 실 같은 버들과 봄 피꼬리가 돌아가고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가 슬피 우는 장면을 통해 가을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을 여회고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화자는 임을 이별하고 ‘삼춘’에 임과 즐기던 일이 꿈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중략)

지척 동방 천 리되어 바라보기 묘연(杳然)하고
 은하작교(銀河鵲橋) 끈쳤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
 인정이 끈쳤으면 차라리 잊히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耳目)에 매여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지척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은하를 잇던 오작교조차 끊기니 화자가 임을 보러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의 정이 끊어졌다면 차라리 잊힌다면 좋겠지만 아름다운 임의 자태와 거동이 눈과 귀에 이미 매여 있어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라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수만한(千愁萬恨) 가득한데 끝끝치 느끼워라
 하물며 이는 추풍(秋風) 별회(別懷)를 부쳐내니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시름이라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바 없건마는
 유유별한(悠悠別恨) 간절한데 소리소리 수성(愁聲)이라
 아해야 술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천가지 시름과 만가지 한이 가득한데 끝끝마다 북받쳐 오른다고 말하는 화자입니다. 하물며 가을 바람에 이별의 슬픔을 부쳐내니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화자의 슬픔을 증폭시키는 대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짐승이 평상시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겠으나, 이별의 슬픔에 잠긴 화자에게는 소리소리 수심으로 들립니다. 화자는 이러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아이에게 술을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가을이 다가오는 늦여름 ~ 초가을에 임과 이별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 시입니다. 이별의 정한을 느끼는 화자의 태도에 집중하면서 해석한다면 어렵지 않았겠으나, 고전적인 어휘에 당황했을 수 있을 듯합니다. 고전적인 어휘가 등장했을 때, 뜻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글의 분위기나 앞뒤 문맥으로 유추한 후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 기> —

‘우도(友道)’란 벗을 사귀는 데 중요한 덕목으로, 사대부 시가에서 ‘우도’는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이나 풍류와 은거 등의 친자연적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곡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왜적에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고, 전란 후에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초야에 은둔했던 삶을 살았다. 작가는 ‘우도’를 통해 월곡을 추모하며 충의를 중시했던 월곡의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시의 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대부 시가에서 등장하는 우도는 친구를 사귀는 덕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작품 내부에서 월곡 우배선의 내면에 동조하려는 작가의 의식을 확인하고, 월곡 우배선의 삶을 예찬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하며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

넷 사름 이젧 사름 이목구비(耳目口鼻) ㄹ것마는
나 혼자 었디 호야 넷 사름을 그리논고
이제도 넷 사름 겨시니 귀 내 벗인가 호노라

<제1수>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옛 사람과 지금 사람이 이목구비가 같음에도 화자는 어찌 서인지 옛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옛 사람이 있으니 화자는 이 옛 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는 누군가를 벗 삼고자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옛 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보기>에서 언급한 ‘월곡’ 일 것임을 예상하면서 넘어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청송(靑松)으로 울홀 삼고 백운(白雲)으로 장(帳) 두르고
초옥삼간(草屋三間)이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흉중(胸中)에 사념(邪念)이 업스니 그를 사랑호노라

<제4수>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구름으로 장막을 두르고 세 칸짜리 초가집에 숨어 있는 화자의 벗은 가슴 속에 샅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기>에서 언급했던 초야에 은둔했던 삶을 산 월곡을 떠올리며 그를 사랑한다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벗을 사랑한다는 정서가 계속 등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벗님 사는 땅을 싱각고 바라보니
용추동(龍湫洞) 밧끼오 구름더리 우희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호자 든너 오노라

<제5수>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벗이 사는 곳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고 구름다리 위라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화자입니다. 구름다리 위는 화자가 상상하는 초월적인 공간으로, 월곡이 초월적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통해 그를 예찬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곡을 보고 싶으나 가기 어렵기 때문에 화자는 꿈에서나마 밤마다 월곡이 사는 곳에 다녀갑니다.

밧는 첩첩(疊疊)호고 구름은 자자시니
고인(故人)의 집 땅이 브라도 불성업다
밧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 호노라

<제7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산이 첩첩산중이고 구름이 펼쳐져 옛 사람, 즉 월곡이 사는 곳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자는 그림에도 마음에나마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한다고 이야기하며 월곡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상산(商山)의 영지(靈芝) 캐러 구태어 냇이 가리런가
 좃츠 리 업스되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世上)의 어저러운 일들 듯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 정훈, 「월곡답가(月谷答歌)」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상산에 있는 버섯을 캐러 구태어 냇이나 갈 필요 없으니 우리 둘이 가자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야에 은둔했던 월곡과 같이 화자 또한 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어지러운 일을 듣지도 보지도 말자고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월곡의 모습을 예찬하며 자신 또한 월곡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월곡을 화자가 벗으로 설정하여 내면에 동조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알아 둔다면 좋을 듯 합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대상에게 흠모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의 경우 '입'에게 흠모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인정이 끈'친 '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 화자는 '그'를 '사랑하노라'며 흠모의 정을 느끼고 있으며, '벗님 사는 땅'이 '구름다리 위'라 만나지 못해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②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의 경우 입과 이별했다는 점에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는 있으나, 자신의 현실에 체념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현실에 대해 체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③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가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가 등장하지 않을뿐더러, 화자가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경우 화자가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듯도 보도 마사이다'라며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냉소적인 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④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의 경우 이별한 입을 그리워하는, (나)의 경우 만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주요 정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화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의 경우 이별했음에도 입을 잊지 못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지는 않으며, (나)의 경우 자연에 은거해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지만 이러한 인식이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 ㉠ 죽창(竹窓)
- ㉡ 인정
- ㉢ 추풍(秋風)
- ㉣ 백운(白雲)
- ㉤ 상산(商山)

① ㉠: 입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 죽창을 통해 입을 본다거나, 입을 만나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통해 빠르게 오답임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선지입니다.

② ㉡: 돌아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다.

→ 입과 화자가 사랑하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정'이 끊어졌음에도 잊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과 화자의 사랑하는 마음이나 인연이 끊어졌음에도 화자가 입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심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③ [C] : 입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이다.

→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자연물이 맞습니다. 화자는 하물며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이별의 회한을 부쳐내니 눈 앞에 비치는 모든 것이 시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가 가을 바람을 통해 그 정서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D] : 화자와 입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 화자와 입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햇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름은 '벗님'이 자연에 묻혀 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입과 화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A] : 화자가 연모하는 입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 화자가 연모하는 입과 상산에 같이 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이다'라며 상산으로 가자는 제안을 통해 입과 같이 살고 싶은 공간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① [A]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찬 기운'이 새로이 들어오는 상황을 통해 화자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찬' 기운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② [B] :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동일한 문장 구조인 '~(사물) / ~하는 듯'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인 '이별의 정한'과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③ [C] :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인 '잔나비'가 '슬피운다'는 점을 통해 화자가 이별로 인해 느끼는 슬픈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④ [D] :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회상의 방식인 '삼춘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를 통해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달라진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⑤ [E] :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화자의 이별한 상태와 동일시되는 대상인 '소리소리 수심'인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이별의 한을 느끼며 우울해하고 있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우도(友道)'란 벗을 사귀는 데 중요한 덕목으로, 사대부 시가에서 '우도'는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이나 풍류와 은거 등의 천자연적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다. 월곡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왜적에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고, 전란 후에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초야에 은둔했던 삶을 살았다. 작가는 '우도'를 통해 월곡을 추모하며 충의를 중시했던 월곡의 내면에 동조하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다.

①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이제도 옛 사람 계시니'라며 '내 벗'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옛 사람'을 '그리는' 점을 통해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제4수>에서 작가는 '초옥삼간'에서 '사념'이 없이 살고 있는 벗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벗이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제4수>에서 작가는 '초옥삼간'에서 '사념'이 없이 살고 있는 벗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벗이 지향하는 초야에 묻혀 안분지족하는 삶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제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름다리' 위를 '꿈'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벗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군.

→ <제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름다리' 위를 '꿈'에서나마 다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구름다리' 위라는 환상적인 공간을 '꿈'에서나마 다녀올 정도로 벗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④ <제7수>에서 작가는 벗의 '집'을 '미'와 '구름'에 묻혀 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미'와 '구름'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제7수>에서 작가는 벗의 '집'을 '산'과 '구름'에 묻혀 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화자가 쉽사리 찾아가기 어려운 공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벗의 집은 친자연적 공간이 맞지만, 해당 부분은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수 없'는 환경이라 만나지 못해 슬픔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은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막을 두르고' 부분입니다.

⑤ <제9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벗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어스러운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제9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벗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어스러운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화자는 '세상의 어스러운 일'을 '듣지도 보지도 말'자며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